

클래식 명곡 산책 - 12 - 삼중주

글. 송주호 EBS IT운영부 선임



You Tube를 통해
이번 호의 곡을 감상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악기와 그 주요 작품들을 소개하고 대규모 합주로 마무리했다면, 올해는 실내악 앙상블을 중심으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 첫 글은 삼중주입니다. 세 개의 악기로 구성된 삼중주는 다양한 배합이 가능하고, 실제로 다양한 편성의 삼중주곡들이 존재하죠. 여기서는 그중에서도 두 개의 단선율 악기와 피아노로 구성된 작품들을 골랐습니다. 서로 다른 음색을 가진 세 개의 악기가 펼치는 조화를 즐겨보세요!

루트비히 판 베토벤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피아노 삼중주 4번 ‘가센하우어’ Piano Trio No. 4, Op. 11 ‘Gassenhauer’ (1797)

18세기 말 즈음 유럽의 중산층에는 피아노 삼중주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전에는 현악사중주가 대세였지만, 사실 아마추어들이 연주하기에는 쉽지 않았거든요. 반면에 피아노 삼중주는, ‘음악의 진실 신문’의 1789년 기사에 따르면, “덜 열정적인 아마추어와도 친밀하게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장르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피아노 삼중주의 인기로 당시 여성들이 교육을 받은 악기가 대부분 피아노였기 때문에 여성이 전문 음악가로 진출하는 기회가 많아졌고요, 새롭게 개발된 ‘포르테피아노’라는 건반악기도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결을 선도한 작곡가는 모차르트였습니다. 그는 1786~89년 사이에 여섯 개의 피아노 삼중주곡을 썼죠. 그리고 베토벤도 1794년에 세 개의 피아노 삼중주를 완성하고 ‘작품 1’을 붙이면서, 피아노 삼중주는 전문적인 실내악 장르로 격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베토벤의 <피아노 삼중주 4번> (1797)는 처녀작인 ‘작품 1’에 이은 작품입니다. 이 곡은 피아노와 클라리넷, 첼로로 편성되어있는데요, 바이올린이 클라리넷으로 대체된 것은 목관이 개량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었던 당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클라리넷은 바이올린으로, 혹은 첼로는





루트비히 판 베토벤 / 출처 : wikipedia.org

바순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적어두어, 보다 익숙한 편성으로도 연주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전체는 세 악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특히 마지막 악장은 변주곡으로 되어있습니다. 변주곡의 주제는 요제프 바이글(Joseph Weigl)의 오페라 <해적> 중 삼중창 “내가 약속하기 전에”라는 아리아입니다. 이 노래는 당시 큰 인기를 끌어서 빈의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불렀기 때문에, 이 삼중주곡은 ‘거리에서 불리는 노래’ 즉 ‘유행가’라는 의미의 ‘가센하우어’라는 별명이 붙었죠. 먼저 주제가 연주된 후 아홉 개의 변주가 이어지며, 생기 있는 코다로 마무리합니다.

펠릭스 멘델스존 Felix Mendelssohn-Bartholdy (1809~47)

피아노 삼중주 1번 Piano Trio No. 1 in D minor, Op. 49 (1839)

멘델스존은 이미 10대 때에 독주곡부터 관현악까지 다양한 규모의 작품들을 발표하고 주목을 받았던, 모차르트에 비견되는 신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내악 분야에서는 <8중주> 등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였을까요? 1832년에 누나인 파니에게 ‘좋은’ 삼중주곡들을 쓰고 싶다고 편지할 정도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후 첫 삼중주곡은 7년 후인 1839년 9월에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멘델스존은 세 권의 ‘무언가’ 작품집을 발표하고 <교향곡 3번 ‘스코틀

펠릭스 멘델스존 / 출처 : kickstarter.com



랜드’>(1842)와 연극음악 <한여름 밤의 꿈>(1842),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1844) 등을 착수했던 원숙한 수준이었음에도, 이 곡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친구이자 작곡가인 페르난트 힐러에게 검토를 부탁한 것이죠. 힐러는 피아노 파트의 화음들이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그가 좋아했던 베를리오즈나 리스트 등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새로운 화음들을 권했습니다. 멘델스존은 다소 익숙지 않고 혁신적일 수 있는 그의 조언을 과감히 받아들였고, 힐러는 자신이 이 걸작의 완성에 기여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840년에 이루어진 초연에 참석한 슈만은 베토벤 이후 가장 위대한 피아노 삼중주곡이라고 높이 평가했으며, 그가 발행했던 ‘음악신보’(Neue Zeitschrift für Musik)를 통해 이 새로운 걸작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줄 것이다.”

힐러의 조언에 힘입은 피아노 파트는 쇼팽과 리스트의 영향으로 화려하고 두드러진 존재감으로 음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첼로로 제시되는 주제 선율은 우아하면서도 우울한 기분이 감돕니다. 주제를 다루는 솜씨나 대위법을 전개해나가는 기술은 그의 뛰어난 작곡 실력을 보여주며, 악기의 균형도 적절히 조절되어있죠. 2악장은 느리고 조용하게 연주되면서 낭만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피아노 파트가 멘델스존의 ‘무언가’를 연상시킬 정도로 노래와 같은 선율을 들려줍니다.

3악장은 '스케르초'지만 론도에 가깝습니다. 2악장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며, 이듬해에 작곡할 <한여름 밤의 꿈>의 스케르초를 예견할 정도로 활기칩니다. 4악장은 '아파쇼나토'라는 지시어와 같이 열정이 넘칩니다. 피아노 주도로 열기가 달아오르는 와중에 첼로가 아름다운 선율로 식혀줍니다.

요하네스 브람스 Johannes Brahms

(1833~97)

호른 삼중주 Horn Trio in Eb major, Op. 40

(1865)

브람스는 함부르크에서 더블베이스 연주자의 아들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 혼을 배웠습니다. 브람스가 혼, 바이올린, 피아노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편성의 실내악으로 이렇게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낸 것은 다양한 악기를 다뤄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이 성공적인 예가 있음에도 쇠르지 리게티와 찰스 위리넨 등 소수만이 이 편성에 도전했다는 것 또한 이러한 편성으로 곡을 쓰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죠.

브람스가 이 작품을 작곡한 것은 어머니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람스의 어머니 크리스티네는 이 곡을 쓰기 1년 전인 186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니에 대한 회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자신의 어렸을 적의 모습이 특히 혼에 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브람스는 본래 이 작품을 오늘날 사용되는 밸브가 달린 혼이 아니라 18세기 이전에 사용된 내추럴 혼을 위해 작곡했습니다. 브람스는 이 곡의 첫 주제가 숲속을 걷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려온 사냥 나팔소리였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밸브 혼보다는 내추럴 혼이 더욱 사냥 나팔과 비슷한 것은 사실이죠. 브람스가 배웠던 악기가 내추럴 혼이었다는 점도 적잖은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혼의 음정은 전체적으로 Eb의 배음을 위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내추럴 혼이 일반적인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밸브 혼으로 연주됩니다.

이 곡은 네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신고전주의 작곡가임에도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있지 않으며,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느리게-빠르게-느리게'



요하네스 브람스 / 출처 : wtl.org



김유성 김상수 / 출처 : bruzamedia.com



기음 권내송 / 출처 : wikipedia.org

게-빠르게'의 구성은 오히려 바로크 시대의 '교회 소나타' 형식을 연상시키죠. 1악장은 아련한 기억을 떠올리듯 차분하며, 2악장은 즐거운 추억들로 가득합니다. 3악장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어머니를 애도하고, 4악장은 앞에서 사용되었던 주제들을 다시 사용하면서 애도 후 삶의 기쁨을 회복합니다.

카미유 생상스 Camille Saint-Saëns (1835~1921)

타란텔라 Tarantelle for flute, clarinet and piano, Op. 6 (1857)

20대 초의 젊은 생상스는 여러 음악모임과 살롱에 참석하여 로시니를 비롯하여 영향력 있는 음악가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알게 된 연주자인 루이 도뤼스(Louis Dorus)와 르네 르루아(René Leroy)를 위해 1857년에 <타란텔라>를 작곡하고 그들에게 헌정했죠. 19세기에 목관악기는 프랑스의 악기로 인식되었지만, 특이하게도 클라리넷만큼은 모차르트에 이어 베히,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 등 독일어권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에서 클라리넷은 19세기 중반까지 실내악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남들과 다른 시도를 주저하지 않았던 젊은 생상스 남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로시니는 생상스에게 저녁 파티에서 이 곡을 연주해 줄 것을 부탁했고, 참석자들은 로시니가 작곡한 것으로 알고 “대단한 걸작입니다! 훌륭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로시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곡은 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내 옆에 있는 신사분이 작곡했죠.”

<타란텔라>는 세 부분으로 나뉘며, 이탈리아 춤곡인 타란텔라의 전형적인 6/8박자 리듬으로 진행합니다. 첫 부분에서는 동일한 저음 스타카토 리듬 패턴이 용수철이 툭툭 튀듯 반복하며, 그 위에 두 악기가 선율을 연주하며 발전합니다. 가운데 부분은 호흡이 긴 선율이 서정적이고 꿈꾸는 듯 흐르며, 마지막 부분은 다시 첫 부분의 주제가 재현됩니다. 마지막 코다에 이르러 빠르고 활기 넘치게 마무리합니다.

기욤 코네송 Guillaume Connesson (*1970) 테크노-퍼레이드 Techno-Parade for flute, clarinet and piano (2002)

19세기의 독일과 프랑스의 음악을 각각 금관과 목관으로 특징짓는다면, 20세기는 각각 리듬과 음색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19세기 프랑스 작곡가들도 금관 작품을 썼고, 20세기의 프랑스 작곡가들도 다양한 리듬을 들려주었지만, 그다지 주목받는 영역은 아니었다는 의미죠. 이런 점에서 역동적인 리듬으로 강인한 생명력을 들려주는 프랑스 작곡가 기욤 코네송은 이단아와 같은 존재이며, 그렇기에 더욱 주목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많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테크노-퍼레이드>는 코네송의 음악을 대변하는 작품으로, 테크노 음악의 리듬을 적용하여 현대인에게 강하게 어필합니다. 동일한 비트를 유지하며 빠르게 연주하는 피아노가 테크노 음악을 연상시키는 주인공이죠. 여기에 플루트와 클라리넷이 속닥거리기부터 거칠게 소리 지르기까지 큰 변화의 폭을 넘나들며, 빠르게 움직이는 제스처와 호흡이 긴 제스처 등 대비되는 음형으로 서로 휘감고 부딪힙니다. 코네송의 말을 빌면, 소란스러운 축제의 분위기와(이 곡은 ‘엥페리 페스티벌’의 10주년을 기념하여 작곡되었다는 점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몹시 흥분한 상태의 두 가지 성격이 공존합니다. 중간에는 피아노가 작은북을 모방하듯 브러시로 현을 쓸어내기도 하고 현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연주하며, 그 위에 플루트의 음향효과와 클라리넷의 글리산도가 더해지는 독특한 사운드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

